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팀 구성·운영

전북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단장으로 5개팀 꾸려
피해자 보호·재발방지 조치·디지털 윤리교육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정기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구성된 TF팀은 △학생피해 지원팀 △교직원피해 지원팀 △디지털 성인식 개선팀 △디지털 윤리 대응팀 △언론대응팀 등 5개 팀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TF팀은 단장 주재로 주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사안 발생 시 피해자가 절

차에 따라 보다 쉽게 상담·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별 일스톱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학생피해 사안 신고는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생활교육팀(063-239-3471)에서, 교직원 피해 사안 신고는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활동보호팀(063-237-0344)에서 담당한다.
또한 학생 및 교직원 피해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피해자 발생 추이를 분석·관리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정책을 수립해 나간다.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조치도 강

화된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적극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알리고, 온라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윤리 및 시민교육을 강화한다.
유정기 부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의 기능이 중요하다"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배포를 범죄가 아닌 장난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의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5층 회의실에서 한국교육노동조합과 '2024 단체협약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전북교육청, 신생 교원노조와 단체협약 합의서 조인

한국교원노조, 지난 7월 8일 단체교섭 요구... 총 28개 안건에 합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4일 5층 회의실에서 한국교육노동조합(위원장 박창용)과 '2024 단체협약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교육노동조합은 올해 5월 설립된 신생 교원노조로, 지난 7월 8일 전북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양 기관은 예비교섭을 통해 교섭 운

영 방법에 합의한 후 실무교섭을 거쳐서 1개항, 본문 8개조(9개항, 4개호, 6개목), 부칙 5개조(8개항) 등 총 28개 안건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적정규모의 사무실 및 조합활동을 위한 비품 지원 △학생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노조활동 보장 △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 시설 이용 협조

등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교사의 업무환경, 권리와 복지, 수업과 성장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며, 특히 교사의 처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은 물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서로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이주민 생활지도사 교육과정 개설 '맞손'

우석대, 군장대·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협약 체결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4일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군장대학교,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열린 협약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이계철 군장대 총장,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이주민 생활 지원사업 생태계 조성 위한 공동협력 △국제협력 및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

램 연구·개발 △교육 및 훈련, 연구 협력, 자문·심의 등 활동 교류 △현장 학습 기회 제공에 대한 공동협력 △인적·물적 인프라의 공동 활용을 통한 교육 및 지원 체계 강화 등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우석대는 미래융합대학에 '이주민 생활지도사' 비교과 과정을 개설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박노준 총장은 "이날 협약이 노동력 부족 해소와 지역 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는 지역 사회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2학기 진로 탐색 행사 진행

해외 취업·영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국제기구 인턴십 설명회도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는 4일 지역혁신과 호텔식음료서비스실실 105호에서 '2024년 2학기 진로 탐색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호텔경영학과 학생 120여 명이 참석해 2학기 학과 프로그램과 해외 취업 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호텔경영학과 교수가 직접 학생들과 함께 해외 현지 호텔을 방문해 채용 면접을 진행하는 차별화된 강점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전공과목을 영어로 진행

하는 'English Zone'도 소개했다. 'English Zone'은 외국인 교수들과 4학년 학생 중 영어 회화가 뛰어난 학생들이 멘토로 나서 후배 학생들의 어학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2024 국제기구 청년인턴 파견 설명회'도 열렸다.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은 전주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당 담당자가 호텔경영학과를 직접 방문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호텔경영학과 심영국 교수는 "전주시 국제기구 인턴십 담당 팀장이 전주대 호텔경영학과와의 글로벌 마인드 수준을 높이 평가하면서 직접 학교를 방문했다"며 "많은 학생이 넓은 세계의



문턱을 두드리고 큰 꿈을 향해 도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수 학과장은 "진로 탐색 행사는 호텔경영학과 학생들의 해외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자리"라면서 "학생들의 향후 진로 계획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더 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



4일 전북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양오봉 총장과 김영일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원의 저녁밥 및 쌀 소비 축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우리 쌀 먹고 학교생활 든든하게

전북대, 농협 전북본부와 '천원의 저녁밥' 운영 지원받은 4000Kg 상당의 쌀, 학생 식당서 활용
쌀 소비 축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적극 협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본부장 김영일)와 함께 2024년도 2학기 '천원의 저녁밥'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4일 대학본부에서 양오봉 총장과 김영일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4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천원의 아침밥에 이은 천원의 저녁밥 추진을 통해 지역의 쌀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는 전북대에 4,000Kg 상당

의 쌀을 지원하고, 전북대는 이를 학생 식당 등에서 천원의 저녁밥에 활용한다.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는 학생 건강을 위한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쌀 소비 축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은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에서 협력해 준 덕분에 우리 학생들이 고품질 쌀로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식사까지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우리 학생들이 우리 쌀을 먹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데 더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젊은 교사 80% '이직 고민'

20·30대 교사들 대상 전북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원보수위원회 신설 찬성... 처우 개선 등 시급

도내 20·30대 교사 10명 중 8명이 월급 문제로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이 교·사대의 인기 하락 및 교직 기피와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며, 교사의 자긍심 회복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교총의 설문조사 결과, 전북의 젊은 교사들은 열악한 처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91.7%의 교원이 직업 만족도에서 불만족으로 조사됐다.
이는 단순히 월급 인상 문제를 넘어, 공무원 보수 인상 체계와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시한 3.3% 인상률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교사들이 실질적인 소득 증가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82.8%는 물가

인상을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교사들은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며, 92.2%가 연금 개편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어 교직에 대한 미래 전망이 어둡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교원의 처우 개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교원만의 보수와 처우를 전담 논의할 수 있는 '교원보수위원회' 신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응답자의 92.2%가 교원보수위원회 신설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끝으로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가급 시급한 과제로는 '확실한 처우 개선'과 '교권 문제 및 민원 문제 해결을 통한 교권 보장'을 꼽았다.
오준영 회장은 "교사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교육이 교육답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의 처우 개선과, 교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2024 전북창업캠프' 운영

7일 원광대 프라임관서... 창업 과정 실습 중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7일 원광대학교 프라임관에서 '2024년 전북창업캠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창업캠프에는 도내 창업체협교육 중점학교에 다니거나 창업체협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교사 8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창업캠프에서는 기업가정신 강의와 창업아이템 공유를 통해 창업과정을 실습해 보는 동시에, 학교교육과정에서 창업체협교육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는 호남제주권역 창업체협교육 거점센터인 전남대와 원광대가 공동 주관하고, 기업 대표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실제 창업 과정을 경험할 수 있

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강사로는 (주)엔 최훈원 대표, (주)프리더블 배재형 대표, (주)만들당 심은지 대표, (주)디자이너25 김이호 대표, (주)이더디자이너 정은지 대표가 참여한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창업캠프는 학생들의 개인 역량을 개발하고, 창업아이템을 구체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미래의 창업가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주비전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 지원 2.0 선정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가 교육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에 선정됐다.
4일 전주비전대에 따르면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와 협력하는 형태로 해당 사업 3유형(폴리텍연계형)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전주비전대·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적합한 전북 특화산업 수요 맞춤형 이차전지 제조·조립 공정 전문기술인력 양성 체계 구축을 목표로, 향후 3년간 총 30억 원을 지원받아 전북 정주형 이차전지산업 기술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폴리텍연계형(3유형)은 전문기능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과 폴리텍이 연계해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고, 학점 교류, 자격과정 이수 등을 통해 신산업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양 대학은 신재생에너지, 전기, 자동차, 기계, 스마트전기, 스마트전기 자동차 학과들의 특징을 살려 이차전지 융합 전공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정으로 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 공유가 가능해져 두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더욱 고도화 된 융합 인재 교육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병훈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출몰 현상 등으로 불균형·지방소멸 문제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인구의 폴리텍대학과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두 대학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신규 교육복지사 직무역량 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5~6일 이틀간 전주평화회전당 성마리아 교육실에서 9월 1일자 신규 교육복지사 44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복지사는 교육복지중점학교에 배치돼 위기가정 학생 발굴, 맞춤형 지원, 지역기관 연계 등을 담당하는 교육복지지원사업 전문인력으로, 도내 공·사립 학교에 총 184명이 배치돼 있다.
특히 올해는 국가수요인력 50명이 배치돼 출중하고 두터운 학생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수는 신규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체계적 교육으로 교육복지 우선지원 정책을 실현하고, 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학생 맞춤 통합지원 이해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복지 우선지원의 의미와 교육복지사 역할 △교육복지 우선지원 운영 절차 및 월별 사업 추진 △학교 사제관리와 프로그램 실제 △공문서 작성과 예외파인, 학교 문화의 이해 등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어려움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학교·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연계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7일 전주대 평생교육원서 '골목상권 드림 축제'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오는 7일 평생교육원 주차장에서 '제4회 전주골목상권 드림 축제(효자동 후곡상권 WE드림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전주시의 협업으로 지역 주민, 소상공인, 지역기관들의 상생을 목적으로 평생교육 홍보, 문화예술 공연, 시민 참여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시민 노래자랑, EDM DJ 파티를 시작으로 히든싱어 싸이 콘서트가 열린다. 또 야광 팔찌, 팝콘 및 솜사탕 만들기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및 프리마켓 행사도 마련됐다.
특히 행사 참여 상권 이용에 따른 총 500만 원 상당의 경품 응모권, 후곡상권 할인권도 증정한다. /장은성 기자